

연중 제23주일

기도서 431면 (C해)

제1독서 : 지혜 9, 13-18

제2독서 : 필레 1, 8a, 10, 12b-17

묵 음 : 루가 14, 25-33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루가 14, 33).

□ 감 론

가진 바를 버릴 때,

고귀한 것을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다만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에 찬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려면 내적으로 전인격적(全人格的)인 회개가 요구된다. 이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의 해방,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의 결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속에 대한 집착이란, 이 세상의 것들 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이 미움이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방해할 경우, 즉 하느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만일 부모나 처자, 자기 자신보다도, 하느님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서슴없이 미워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하느님은 가족이나 재산이나 권력보다 더욱 소중한 분이시며, 인간세상의 그 어떤 권리도 하느님의 권리 앞에서는 자리를 비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주저함이 없이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겪으면서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과 치욕과 모멸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주님은 다시 탐(탐배)을 세우는 자의 비유와 전쟁을 시작하려는 왕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다.

돈도 없이 높은 탐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자가 없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가 자기포기할 각오없이 따를 수는 없다. 탐을 세우는데 돈(비용)이 들듯이 주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건축물을 완성시키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돈과 군비가 절대로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적극적인 것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속과는 전혀 다른 면을 지녀야 한다. 세속에서는 무엇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을 잃는 것, 포기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할 때는, 가진 그것 만큼 밖에는 가지지 못하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와같이 자기포기 안에서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반성문·각서 보복 인사

지난 7월말 시국 선언 서명 사진과 관련된, 책임용 십사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반성문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온 세 교수가 9월 1일자로 책임용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소속 대학장이 그 교수들을 대신해서 총장에게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쓸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성의 뜻을 담은 글이 반성문이다. 그리고 반성(反省)이라 함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언행에 관하여 잘못이나 모자람이 없는가를 돌이켜 생각함'을 이른다. 그러기에 시국 선언을 한 교수들은, 그들의 확고한 소신에 의하여, 반성문을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대학교 당국은 이를 계속 고집하고, 급기야 관련 대학장들에게서 각서를 받아낸 것이다.

오늘날 말의 의미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반성문도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성문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며,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글'로 알아듣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뜻으로 통용되는 반성문을 대학교수에게 쓰라고 하거나,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대학당국, 그 책임자의 양식이 의심스럽다.

반성문, 그리고 서명교수들에게 주는 불이익,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실 서명교수들이야말로 선견지명을 지닌 선각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또, 전라남도에서는 교육 민주화 서명교사들을 도서·벽지로 전보 발령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꼴인가! 이토록 치졸한 보복인사가 자행된다면, 교육 민주화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백년대제가 교육에 달렸는데, 교육행정이 이래서야 될 법이나 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순정이 산책



니카라구아 주교단의 호소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혁명 정부는 그동안 교회와 교황을 비난하고 주교를 비롯 성직자, 수도자들을 추방해 왔으며 언론의 검열과 몰수, 인권운동 탄압, "인민교회"를 앞세운 교회 분열 책동 등을 자행해 왔는데 정부의 이러한 교회 박해는 최근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니카라구아 주교단에서는 세계 각국 주교회의에 호소문을 보내고 기도를 부탁해 왔다. 이에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호소문을 접하고 더욱 격화

되고 있는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니카라구아 교회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회신을 보내는 한편, 각 교구 나름대로 니카라구아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해 왔다.

교회는 하나다. 지역적 여건을 달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 하느님의 참된 정의와 평화가 이땅은 물론이고 극심한 고통중에 있는 니카라구아 형제들에게도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중에 기억하자.

天呼山(천호산)의 메아리

—피정의 집 공사 시작—

진—동안 8만 신자들의 뜻을 모은 피정의 집 공사가 시작되었다. 많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 묻혀 계신 이곳 성지이기에 집터를 다듬는 소리마저 믿음의 이어준 선조들과 함께 대화창을 부르는 듯 天呼山(하늘을 부르다)을 메아리치고 있다.

피정의 집이 서 있을 天呼山에는 하느님을 부르다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뿌리들이 공소에 모여 천주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는다. 세상에서만 끝나버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아귀다름도, 과학문명의 잡음도 들리지 않는 이곳, 석양이 질 때 피정의 집에서 성인의 묘역까지 묵주알을 굴리며 산책하노라면 잠잠히 주님의 타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곳이기에 분명히 피정하기에는 천하의 제일 명소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피정의 집은 150여명 한도의 단체, 공동체 목사회,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성령목사회, 부부 주말강습 등 교구단위 피정은 물론 본당단위 신심단체, 가족단위, 개인피정까지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天呼 피정의 집이 다른 피정의 집과는 특이하게 다르다면 성당을 단독 건물로 하여 새벽과 밤, 그리고 하루 3번 3종(三鐘) 소리가 천호산에 메아리칠 것이며, 성체 조배, 개인복상을 위한 성당 내부를 장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일에 동참하여 은혜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다. 피정의 집은 모든 신자들이 각 분야에 따라 협조할 수 있도록 업자에게 완전 도급으로 맡기지 않았다. 우리가 벽돌 한 장, 세멘 한 포, 철근 한 가닥이라도 서로 영키어 지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겠는가?

이제 10만인 순례의 장을 마련하였고 대사특전도 부여하였다. 피정의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때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훌륭한 집이 될 것이다.

전주교구가 설정될 당시 16만 조선 교우 전체가 우리 교구를 경축해 주었고 전주교구의 성공이 조선교회의 성공이라고 그 기대하는 바가 컸다.

우리 순교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부모, 형제, 재산, 생명까지 오로지 봉헌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교구설정 50주년 사업으로 피의 일부를 제물로 봉헌할 때 50주년이 지난 먼 훗날 우리가 순교자들을 찬양하듯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노래하며 100주년 행사를 더욱 성대히 거행할 것이 아니겠는가.

(50주년 중앙위원회 사무처)

◆ 10만인 성지순례(오후 2시~5시)

일	요일	1코스: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정이 → 천호 순교자묘지	
		담당신부	봉사자	담당신부	봉사자
7	일	범석규 신부	김성균·이영미	배영근 신부	연규식·양민우
13	토	성민호 신부	전종희·이영숙	서용복 신부	김진면·김혜경
14	일	김정원 신부	연규식·양민우	김병운 신부	김성균·이영미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 전문의

이 승 립(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2서울신락은행건너편 골목

이리성모병원

알방과

내 과
피부과
소아과

한방과(신설)

내 과
부인과
물리치료과

중풍센터, 요통 및 성인병센터(부설: 물리치료실)

이리시 영등동 268

전화 3-0714~5



교 구 소 식

- ◎ 9월 21일자 각 본당 순정이 소식은 출판사 추석 휴무 관계로 15일까지 보내주세요
- ☆ 축! 견진(14일): 임실 천주교회,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재정참사회: 8일(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2. 사목방문: 9일(화)-수류천주교회(오전 10시30분) · 원평천주교회(오후 3시), 12일(금)-무주천주교회(오전 11시)
-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일 오후 8시, 장소-동산천주교회
- 4. 전주교구 교리교사연합회 9월 월례회: 8일 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사무실, 안건-초등부 교리경시대회 · 성탄 자료집 발간
- 5. 소년 꾸리아 회의: 14일 오후 1시30분,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오 회의실
- 6.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사용자 교육: 9일 오전 10시~12시
 ① 교육내용-생식생리와 접액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 대상-임신을 원하거나 피임을 원하시는 분 · 미혼자(부부 환영)
 ③ 장소-가톨릭센터 2층 행사사무실 ④ 5098) ※ 단체교육 환영
- 7. 추석 합동 워킹미사 안내: 18일(추석) 오전 10시 연도후 미사
 장소-전주지구 교회포지(술개재), 집전-전주지구 사제단 공동집전
 미사예물-각 본당 사무실에 접수
 ※ 벌초 사례금-당일 포지 입구에 비치한 사례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베델성서 제4기 성서편 개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강사-김준호 신부님, 회비-2만원(1년분), 교재대-1만5천원
 접수-교육국(☎0041) 20일까지 선착순 30명, 개강-24일(수) 오후 7시30분
- 9. 제7기 혼인강좌: 22일~27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세타, 수강료-3천원
- 10. 제9기 영세식: 14일 오후 5시, 집전-박정일 주교님
- 11. 제10기 예비자교리반 개강: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9월호 안내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9월호는 9월의 기도, 시골에 계신 하느님, 크리스찬 가정소개, 성 대 그레고리오 학자 교황 소개, 그림명상, 교리, 생활전례, 신자들의 글, 대야분당 임피공소 소개, 농사안배로는 고추 후기 수확량 높이는 방법, 주일 예절안내, 축일표, 교구행사표, 교구소식 등이 실려있다.

특히 이번호는 차치교구설청 50주년 기념 성지순례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다.

※ 가정기도 독서: 시편 117: 1~2 루가 21: 34~36

잡 간!

흐뭇한 이야기

요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본당들이 날로 더해가는 모습에서 교회의 진면목(眞面目)을 보는 것 같다. 가을 문턱에 들러온 아름다운 이야기는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전주 동산본당(주임: 권이복 신부)에서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매주 수요일 나눔의날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 도와 왔는데, 오랜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유병관 군을 적극 돕기로 나선 것. 비록 신자는 아니지만 본당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임순홍) 주선으로 시작한 이 어린이 돕기운동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특히 이곳 지역 주민들도 뜻을 같이해 큰 도움을 보탤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과 함께 살며 활동한다는 세속적인 성격이 교회의 고유한 특성중의 하나라면, 본당이 서있는 바로 그곳, 지역주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현재 전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입원중인 유병관 군이 건강하길 빌며...

동양 석재

건축석·석물조각·시공전문

대표 김혁식(마오로)

전북 익산군 함열읍와리 산 98

공장 (0653) 6-6800

자택 (0653) 3-7818

2-3962

김 안 과 의 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야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요심이 (683) 김병오

부친경찰서 형고문사건 수사 결과어는



불만을 품은 변호사 166명이 재정신청



국민들이 그검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검사 골쳐개나 썩시겠다...



제3회 독서감상문 모집

보다 많은 이들이 양서를 선택하여 읽음으로써 교양과 인격을 높이고 풍부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바로 출판사에서는 제3회 등·봄회 잔치로 다음과 같이 독후감상문을 모집합니다.

*응모자격: 국민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대학·일반부

*선정도서 및 구입처: 성바로 출판사 서적
 구입처-전국 성바로서원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6~15매

*접수마감: 86년 10월 31일

*접수장소 및 연락처: 전국 성바로서원

우편접수-(132)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 성바로출판사 등·봄회 담당자

*시상내용: 상장과 부상
 ①우수상-각2명 ②장려상-다수 ③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수상자 발표: 지상발표로 12월 7일자 가톨릭신문과 등·봄회지 '길' 32호

*독서감상문에 이름과 학교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주최: 성바로출판사

후원: 성바로 여자수도회

전주시 서노송동 639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목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⑤ 1713
 수 너 원 ⑤ 1712
 사 무 실 ⑤ 1711

☆ 미사시간

주일 : 새벽미사-6시, 학생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30분, 아동미사-오후3시
 저녁미사-오후 7시
 평일 : 월-오전 6시, 화·수·목-오전 6시·오후 7시
 금-오전10시30분(어머니미사), 오후 7시
 토-오전 6시·오후 7시(특전미사)

☆ 예비자교리 안내(성탄반 수시 모집)

일 반 인 : 금-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30분
 가정주부 : 목-오전 10시
 지 성 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 장 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반미사 안내 : 9월 10일 오후 8시

16반, 전순복(4-2212)

본 당 소 식

☆ 9월은 순교자 성월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에 참여하여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1.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신입하지 않은 세대는 헌금 신입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헌금신입-사무실)

2. 추석활동 위령미사

당일미사-본당(오전 6시, 오후 7시)
 묘지(오전 10시30분)

※ 조상을 위한 위령미사 예물은 준비된 봉헌봉투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임 : 사목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오늘 오후 3시
 상지회-10일(수) 오후 7시
 울드레아-11일(목) 오후 8시
 반장회합-12일(금) 어머니 미사후
 교미씨음-14일(일) 오후 2시

4. 기념사업 기금 마련 : 참기름, 들기름, 당호박을 판매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혼배 안내 : 혼배를 예정하신 분들은 적어도 혼배 1 달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세요

6. 성가대 단원모집

학생성가대-중·고학생, 토요일 오후 5시
 청년성가대-청년, 금요일 오후 8시
 어머니 성가대-어머니,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7. 기념사업 헌금신입 : 감사합니다

강정후-3만원, 김오남-3만원, 김익화-5만원,
 김호선-10만원, 박희순-2만원, 송효종-10만원,
 박옥순-10만원, 유원석-10만원, 정수자-5만원
 누계-38,38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079,550원 교무금 : 452,900원

오늘의 전례

기도서
431면

제1독서 : 지혜서 9장 13~18절(78면)

응 송 : (후렴)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1. 사람을 먼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락아, 돌아가라"고 천년도 당신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이다(후렴)
2. 당신이 앓아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일어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후렴)
3. 날수 쉼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소서(후렴)
4.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걸고 기쁘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리 위에 내리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후렴)

제2독서 : 필레몬서 1장8a, 10, 12b-17절(418면)

복 음 : 루카복음 14장25~33절(143면)

영성체송 :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다음주 미사 해설자

특전미사 : 김 완 준(안토니오)
 새벽미사 : 배 창 수(도 마)
 학생미사 : 안 용(엘 리 야)
 공식미사 : 김 윤 섭(유스티노)
 (복사) : 김 인 중 · 엄 관 섭
 저녁미사 : 김 대 곤(디모테오)

♣ 중앙성당 교우의 집

최신 장비 시설 · 신축 이전 개업

스 타 사 장

*칼라 · 흑백 고급사진
 *비디오 촬영

☎ 2-6094(구 역전 오거리 남쪽)
 장 남 수(바오로)

가 나 약 국

전주우체국 앞

전화 2-5652

황 의 옥(파로)

본 광고란은

교우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수익금으로 숭정이 4년을 꾸미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회 : 3천원
 접수 : 본당 사무실